

팜파스 어린이 34

# 미안하다고 말하기는 너무 힘들어!

어린이 친구들의 더 큰 성장을 이끌어 주는 사과와 화해의 이야기

박선희 지음, 안경희 그림 팜파스 펴냄 | 100쪽 | 값 11,000원 | 초등 중학년

책소개

# "친구하고 싸운 날! 먼저 사과하기는 싫고 모른척하기에는 맘이 불편해!"

이 책은 어린이 친구들에게 친구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 상황에서 어떻게 화해하고 또 슬기롭게 사과를 주고받을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생활동화책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고 화해를 통해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깨우치도록 도와줍니다.

## 독후활동 주제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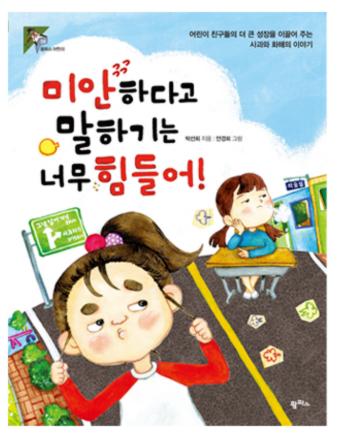
어린이 친구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었을 때 어떻게 관계를 풀어나가야 할지 생각해 보고, 사과와 화해의 방법을 알아보자

- ▶ 사과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 ▶ 말로만 하는 사과 말고 진짜 사과에 대해 생각해보아요!
- ▶ 화해는 서로 주고받는 것! 화해를 통해 더 단단한 관계로 거듭나요!

# ● 책 읽기전에 해보세요! ㆍ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의 앞표지와 차례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

1. 표지에서 다른 점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2. <미안하다고 말하기는 너무 힘들어!>라는 책 제목과 같은 생각이 든 적이 있었나요? 그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3. 이 책의 차례를 나란히 써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이 차례를 살펴볼 때, 이 책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나요? 줄거리를 예상해 간단하게 적어 보아요.

빼도 박도 못하게 사과하게 생겼다!
거래 성사, 영어 숙제와 사과하기!
거래가 이루어질수록 우정은 무르익고
또 유주를 부르면 되지 뭐!
기껏 용기내서 사과했는데!
사과하는 데 이기고 지는 게 어디 있어?
다시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내야 하는 용기

# 책을 읽으면서 질문해보고 다음을 적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

#### 사과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아리는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었다. 잔뜩 풀이 죽은 아리를 보며 유주는 어깨를 톡톡 다독여 주었다.

"야. 그냥 사과하면 되지. 왜 그렇게 속상해해."

유주가 가볍게 말하자 아리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사과하는 거 너무 싫단 말이야."

"응? 그게 왜?"

"자존심 상한다구."

아리의 말에 유주는 눈만 껌벅였다. 아리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차마 말을 꺼내지는 못했지만 유주는 좀 의아해졌다.

'그게 그렇게 □□□ 상할 일인가?'

유주가 아무 말이 없자 아리는 냉큼 말을 쏟아냈다.

"생각해 봐. 도연이는 맨날 잘난 척하잖아. 내가 사과하면 걔한테 수그려야 하는데,

그럼 더 우쭐할 거라고. 정말 눈 뜨고 못 봐줄 것 같아."

아리가 열변을 토하자 유주는 얼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작년에 아리와 도연, 유주는 같은 반이어서 유주도 도연이에 대해 아리만큼은 알았다.

'도연이가 좀 말투가 세긴 해도 잘난 척하지는 않는데.'

유주는 이번에도 생각한 것을 아리에게 말하지 않았다. 유주는 아리의 불같은 성격을 잘 알기 때문이다. 유주는 머리를 긁적이며 중얼거렸다.

"사과하는 게 뭐가 어려워. 나는 하나도 안 어렵던데."

아리가 유주의 말을 듣고 입을 또 삐죽였다.

"그게 어떻게 안 어려워"

"그냥 안 어려워."

유주는 스탠드 아래로 길게 다리를 쭉 뻗으며 말했다.

,
2. 아리는 왜 도연이에게 사과하기가 싫은 걸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글을 써보세요.

1. 위의 밑줄 친 부분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3. 아리처럼 누군가에게 사과하기 싫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는지, 혹은 안 하는지 적어 보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아요.

#### 말로만 하는 사과 말고 진짜 사과에 대해 생각해보아요!

'아리가 사과하려고 불렀나 보네.'

그때 유주가 앞으로 나와 도연이를 마주 봤다. 도연이는 갑자기 나온 유주에게 시선을 돌렸다. 유주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아, 도연아. 미안해."

"어?"

"미안하다고."

유주가 미안한 얼굴로 말하자 도연이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손을 내저었다.

"아니, 잠깐만. 네가 뭐가 미안해?"

"뭐가 미안하긴, 미안할 일이니 미안하지."

"응? 아이참, 너 나한테 무슨 잘못했어?"

도연이가 당황한 얼굴로 물어보자 유주가 머쓱한 얼굴로 웃었다.

"물통 엎은 거 말이야. 그거 때문에 그림 망쳤다며. 야, 진짜 미안하다."

유주의 말을 듣고 도연이는 얼빠진 얼굴로 있다가 냉큼 따져 물었다.

"유주야. 그걸 왜 네가 사과해?"

"응? 그러니까."

"유주가 대신 사과하기로 했어."

아리가 의기양양하게 말하자 도연이는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다.

"김아리. 얘는 네가 아닌데, 왜 얘가 사과해? 물통은 네가 엎었잖아."

"우리끼리 그렇게 하기로 했어. 어쨌든 너는 사과를 받았으니까 됐잖아."

도연이가 따져 가며 쏘아붙이자 아리는 발끈해서 대꾸했다. 아리의 말에 도연이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를 놀리는 거야?'

아리의 말이 어처구니가 없었고, 대신 사과해 주는 유주도 어이없었다.

"뭘 사과를 받아.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다냐?"

도연이가 벌컥 화를 내자 아리도, 유주도 당황했다.

'사과했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지?'

1. 도연이는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도 왜 화를 낸 걸까요? 도연이가 화를 낸 이유와 도연이의 입장에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이야기해보세요.

## 2. 여러분은 상대방에게서 겉으로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진짜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사과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런 사과를 받으면 아마 도연이처럼 더 화가 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화가 난 마음이 풀어지는 "진짜 사과"는 어떤 사과일까요?

#### 화해는 서로 주고받는 것! 화해를 통해 더 단단한 관계로 거듭나요!

"왜 그래?"

유주가 무뚝뚝하게 묻자 아리는 심호흡을 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잘 떨어지지 않는 입술을 애써 움직여 보았다. 아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짧게 말을 뱉었다. "미안."

아리는 딱딱하게 말을 내뱉고 흘낏 유주를 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걸? 유주는 제 말을 콧등으로도 안 듣는 눈치다. 아직도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 같은 유주의 분위기에 아리는 눈썹을 구겼다.

'뭐야? 저 반응은?'

생각지도 못한 유주의 반응에 아리는 굳은 얼굴로 재촉하듯이 말했다.

"야.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러자 유주는 도리어 황당하다는 얼굴로 대꾸했다.

"그런데."

유주의 말에 아리는 절로 목소리가 높아졌다.

"뭐? 야, 내가 지금 사과하는데……."

"누가 사과를 그렇게 하냐?"

아리의 말을 바로 잘라 버린 유주는 차가운 말투로 말했다.

"그리고 너 하나도 안 미안해하는 것 같거든?"

말을 마친 유주는 그대로 복도 귀퉁이를 벗어나 가버렸다.

아리는 얼이 빠진 얼굴로 유주의 뒷모습을 보았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유주를 잡을 생각도, 해명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1. 밑줄 친 부분처럼 내가 사과를 했는데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상대방을 향해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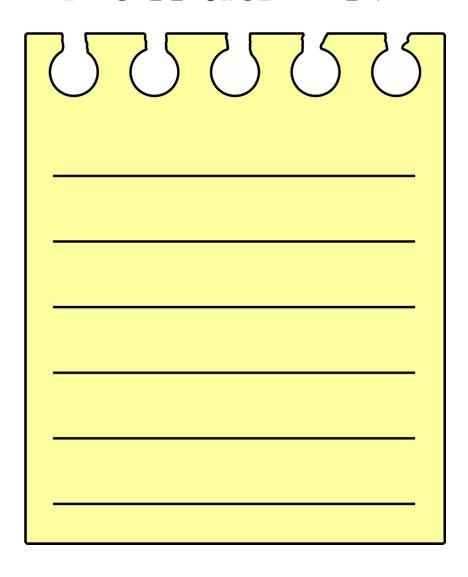
#### 2. 다음 중 화해는 언제 이뤄지는 걸까요?

- ①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내가 사과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 ② "친구야. 미안해." 내가 사과하는 말을 한 순간
- ③ "그래. 나도 미안해."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들인 순간

3. 만일 화해하지 않는다면 유주와 아리는 어떻게 될까요?
화해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서 적어 보아요.

4. 갈등과 다툼은 친구를 사귀면서 꼭 거치게 되는 일이에요. 이럴 때 현명하게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지 않는다면 친구와 영영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만큼 사과와 화해는 무척 중요하답니다.

하지만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기도 해요. 나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 보아요!



## [정 답]

#### ● 책 읽기 전에 해보세요!

1.



- 2. 경험을 적어보아요!
- 3. 자유롭게 내용을 상상해 보아요!

## ● 사과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 1. 자존심
- 2. 도연이에게 사과하면 수그리는 기분이 들어 자존심이 상해서
- 3. 나는 사과를 하는지, 안 하는지 되짚어보고 적어보아요!
- 말로만 하는 사과 말고 진짜 사과에 대해 생각해 보아요!
  - 1. 잘못을 한 당사자인 아리가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유주가 대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진짜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해서/몹시 황당하고 기분이 상한다
  - 2. "진짜 사과"란 무언지 자유롭게 생각해 보아요!

## ● 화해는 서로 주고받는 것! 화해를 통해 더 단단한 관계로 거듭나요!

- 1.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적어보아요!
- 2. 3번
- 3. 자유롭게 상상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만들어 보세요!
- 4. 사과하는 마음을 먹은 자신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자유롭게 적어 보아요!